東亞日報

反衡平社運動
互相協調의 解決을 要함

晉州에 衡平運動이 突發한 後로 一轉하야 南鮮各地에 該運動을 惹起케하고 遂히 南朝鮮大會外지 開催케되야 該衡平運動의 氣勢가 매우 白熱化한 것은 吾人이 임이 此를 報道하얏거니와 이제 該運動의 發源地인 晉州에서 衡平社對抗運動이 開始케 된것은 該運動의 社會的 波瀾이 如何히 深切한것을 說明하는 바이라 吾人은 이 點에 잇서 再히 一考할 必要가 有하다 하노라

勿論 各地의 衡平社가 如何한 意義와 또 如何한 目的이 有한것은 吾人의 임이 熟知하는 바라 即 人格의 衡平을 絶叫하며 在來의 陋習인 階級制度를 打破하라는 것이나 이 運動도 亦然 現代思潮의 一側面인 人格의 平等觀念에 出發한것을 發見할 바로다 吾人은 이 點에 잇서 該主義의 眞理를 擁護하얏스며 또 該運動의 實現方略이 全혀 同胞觀念에 基한 社會協調의 精神에 一致할 것을 力說하고 一般社會人士의 深大한 同情과 反省을 促進하얏든 것이로다 이와가치 하야 該運動이 起한지 以來 數月을 不出한 今日에 此에 對한 社會一部의 反抗을 招케 된 것은 그 原因이 어데 잇스며 또 그 善後策이 如何할 것인가 萬一 社會生活의 實態를 全혀 階級鬪爭의 事實로 看做할진대 今番의 衡平運動이 起한 것도 勿論 階級爭鬪의 一例일 것이요 또 此에 對한 對抗運動도 亦然 階級鬪爭의 反映으로 看做할 것이라 故로 이 運動이 起하고 또한 이 運動에 對抗하는 敵對觀念이 起하는 것이 도로혀 必然的 法則에 屬할과가치 尋常當然視할는지 不知할바라 그러나 吾人의 社會的 理想은 分裂보다는 協調오 鬪爭보다는 互相扶助의 觀念에 在한 故로 社會의 階級이 對抗할 不自然한 事實이오 또 이로 因하야 階級과 階級間의 反目이 生하는 것은 不美한 事實이라 그럼으로 吾人은 該運動이 發起될 當初부터 決코 此를 階級的 敵對觀念에서 出한 것으로 認定치 안이하얏고 또 이 運動의 將來 解決方略이 全혀 서로서로의 反省과 서로서로의 互讓에 依하야 到達할 것을 斷言하얏든 바로다 이와갓흔 것이 吾人의 觀察이엇고 또 理想이엇도다 吾人의 此論이 決코 便宜的 苟合妥協論이 아닌 것은 更히 吾人의 力說을 不待할바어니와 往々 一知半解의 徒와 誇大妄想者流가 互相雷同 迎合하야 事端의 眞相을 曲解하고 反히 外部의 反感을 招케 할것을 吾人은 甚憂하얏든 바로다 何故오 大凡 吾人의 日常生活에 習慣의 威力이 如何히 頑固重大한 것은 다 吾人共知의 事實이라 그 主義가 如何히 善하고 그 旨이 如何히 美하드래도 人心에 慣宿한 事實은 實로 一朝一夕의 短時間으로 卒然 除法키 難하거든 況且 過去 累百年의 制度이라 아즉도 陳腐한 舊惡習이 人心에 半乎 潜在함이리요 故로 吾人은 衡平運動의 步武가 漸一漸으로 그 理想을 實現할 것이요 또 그 實現方略이 全혀 社會人心의 反省과 一般衡平社員의 地位改善으로 依하야 可得할 것을 論斷한 所以가 此에 在하도다 그럼으로 吾人의 觀하는 衡平運動은 一面으로 打破에 務함보다 徐々히 建設에 着意할 것이며 또 社會의 分裂反目을 助長함보다 互相提携의 啓蒙的 態度에 出치 안하면 아니될 것을 力說하는 도다

今番 晉州의 一部社會에 起한 對抗運動의 裏面이 엇더한 材料가 伏在하며 또 將來의 影響이 如何케 될지는 吾人이 難測할바어니와 萬一 人格의 平等觀念을 無視하며 一般衡平社員을 一種特殊의 非人으로 看做하야 本來의 舊制度를 永遠히 維持치 아니치 못하겟다는 主義主唱에서 今番의 對抗運動이 起하얏다하면 이것은 時代의 進運을 無視하고 人格의 尊重을 冒瀆하는 癡論愚說이라 吾人은 此를 鳴鼓而攻치 안할 수 업는 바로다 그러나 現下 우리 朝鮮에 生息呼吸하는 者로 이와 갓흔 愚鈍頑冥의 徒는 決無할 것으로 思하는 吾人은 今番의 對抗運動이 必히 正面攻擊의 主義主張을 排斥함보다 도리혀 他에 그 裏面의 曲折이 有할 것을 推測하는 바로다 吾人이 그 曲折의 是非를 未判하고 이제 輕々히 今番의 對抗運動을 批判치 못하겟스나 幸히 誤解를 一掃하야 互讓提携의 緖에 就하기를 切望하는 바로다

中國思想界의 新現象 (卅八)
愚樵 (譯)

勞働運動의 新傾向 (續)

이러한 法規는 그 性質上 一般의 傭工의게 適用되여야 할 것임을 不拘하고 實은 參戰勞働者의 雇傭契約時에 이것을 適用하엿슬 뿐이다 歐洲大戰後 傭工事務局의 自然消滅과 同時로 三法令은 다 가치 死法에 歸하얏다 其後 昨年 二月 廣東政府는 工會條令(即 勞働組合法)을 公布하얏는대 北京政府에서도 一般的 勞働法을 制定하려고 하는 運動은 今番의 勞働立法運動이 嚆矢다

今番 勞働立法運動은 在北京中國勞働組合書記部의 發起로 憲法中에 勞働法을 揷入하자고 主張함이니 昨年 八月末에 勞働者의 集會結社權 同盟罷工權 國際的 契約締結權 勞働時間의 制限 勞働代表의 官私企業機關에 對한 參加權 承認 等을 包含한 十九個條의 勞働法草案을 國會에 送付하고 請願하엿다 이것보다 三日前에 國會議員 李慶芳 氏 等은 스스로 勞働法案을 國會에 提出하엿섯는대 同案은 勞働者를 保護한다 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勞働運動에 干涉하야 이것을 壓迫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非難이 잇섯고 또한 議員 黃啓發 氏는 前記 勞働組合書記部의 要請에 依한 別個의 勞働法案을 國會에 提出하엿고 이 外에도 議員 江浩 氏 其他에서도 勞働法案이 提出되엿다 그 結果 昨年 十一月 十六日 國會의 憲法審議會는 勞働法案의 討論에 盛况을 呈하엿섯다 左에 當日의 主要한 贊否兩說을 紹介하고자 한다

●勞働法案의 審議● 爲先 議員 江浩 氏는 『國家는 勞働者의게 對하야 이를 保護할 責任이 잇다 그 方法은 法律로 이것을 定함』이라는 條項을 憲法에 揷入하라는 提案을 說明하야曰

勞働問題가 中國에서는 아즉 大問題로 되지는 아니하엿스나 勞働階級은 社會上 가장 큰 苦痛을 受하는 者오 또한 가장 多數한 人口를 擁有하며 잘못하면 擾亂의 導火線이 될 것이다 이에 本員이 本案을 提出하는 所以라

고 함에 對하야 林長民 氏는 贊成의 意를 表하야曰

十九世紀 世界는 憲法制定의 世界이엿스나 所謂 憲法은 一部階級의 憲法에 不過하다 即 從來의 各 憲法은 資本主義 憲法이다 그러하야 이 憲法上의 不公平은 憲法 그것의 根本的 動搖를 誘致하엿다 多幸히 아즉 憲法을 制定하지 아니한 我中國々民은 當然히 世界의 新潮流에 鑑하야 勞働者 保護에 關한 規定을 憲法中에 揷入하고 그로써 社會革命을 未然에 防止할 것이다 萬若 그리하지 아니하면 將來에 過激한 社會思潮가 出現하야 不完不備한 憲法을 根本的으로 推翻하리라

고 말하엿다 이에 對하야 易宗夔 氏는 反對論을 하엿는데

이미 憲法이 人民의 權利를 規定하는 以上에 人民의 一部인 勞働者를 爲하야 特別히 保護的 規定을 設할 必要는 업다 保護라고 하는 言語는 强者가 弱者에 對하는 言語요 憲法은 人民에 對하야서는 一律平等의 精神을 오히려 [illegible]하는 것이다

歐洲의 社會史와 中國의 社會史를 同一視하는 것은 穩當하지 못하나 中國에는 中國固有의 社會發達의 歷史가 잇다 그럼으로 憲法制定上 반다시 歐洲의 新潮流에 迎合하여야 할 必要는 업다 然이나 今日 中國軍閥은 將來 財閥이 되거나 或은 財閥이 될 念慮가 잇다 이러한 傾向에 鑑하야 다못 人民의 權利는 一律平等이라는 一條項으로는 安心할 수가 업다 그럼으로 本員은 憲法中에 國民의 敎養及 生計를 保障하는 一條項을 設하고 그로써 經濟上 及 社會上의 平等을 圖謀할 必要가 잇다

이것으로 討論은 終結하고 票決한 結果 國民의 經濟生活에 關하야는 憲法中에 特別規定을 設할 必要가 잇다는 것으로 決定하고 그 標題及條文은 憲法起草委員會로 하야금 起草하게 하기로 決定하엿다

●憲法草案● 憲法起草委員會에서는 生計라는 獨立한 章을 憲法中에 設하게 하고 本年 一月 十三日의 會議에서 左와 如한 草案을 通過하엿다

第一條 國民의 生計는 正義에 適合하고 各々 相當한 價値生活을 가지게 할 것으로 原則으로 하고 個人 生計의 自由는 이 範圍內에서 相當한 保障을 受할 것이라 함

第二條 國家는 財産, 營業及 私人契約의 立法에 對하야 相當히 左의 諸項을 規定할 것이라 함

(一) 天然의 富源을 利用하는 營業은 國有或은 地方의 公有로 함을 原則으로 함 其特許及其他의 營業으로 獨占에 屬하는 것은 國家或은 地方에서 法에 依하야 이것을 監督, 制限或은 徵收함

(二) 財産의 繼承에 對하야는 國家는 其價額及 繼承者의 親等或은 關係에 依하야 法律에 依하야 制限을 加하며 並하야 累進法으로 其稅率을 定함

(三) 高利의 貸借及 重租는 此를 禁함

東亞日報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 發行兼編輯人 / 印刷人 / 新聞定價 廣告料金

▽◇佳作漢詩◇△

初夏田舍 七律押陽
論山 李晃榮

軟草輕楊弄曙光。田家夏日不知長。北牕醉臥槐陰厚。南畝勤歸麥氣凉。深谷風來鶯語細。空庭花落燕泥香。桑麻甘做遺民事。叱犢羊牛下夕陽。

同
江西 金弘淵

芥花桑葉間靑黃。蛺蝶初過[illegible]房。武輪早動微新雨。麥蒔方成[illegible]。各有生涯元自苦。了無閑日不知忙。揷秧正急田多稼。征向山頭恨夕陽。

飛行機 五絶押支
馬山 文德淳

得氣神機動。騰空晴日支。莫言妙[illegible]。此亦人所爲。

同
金堤 金鳳瑞

人飛如有翼。機製定神奇。安得御風術。更無勞四支。

物產獎勵 七古押東
中和 金志鶴

東京先獎通商物。人蔘皆社[illegible]西[illegible]。細布從儉宜尼門。黃裳元吉包羲宮。世界列國凡幾國。四萬年前[illegible]鴻濛。山川阻隔風氣殊。所以物產祖不同。君看海外往來商。各售方物爭富功。歐西利用漏巵黑。支那輸出綾羅紅。惟我東方君子國。食々衣々人道隆。民俗儉四千載。月用物品常不窮。平南所產有木棉。[illegible]

先導者【65】
長白山人
중편(中篇)(七의 一)

종로人사건이 잇슨 이튿날 리선생은 돌연히 가락수삭을 당하고 종산일부헌병대에 구금을 당하엿다 포박을 한것은 아니나 뭇산헌병대헤서 와서 리선생을 다려다가 헌병대의 장교숙직실에 가둔것이다

잡혀간날 저녁에 리선생은 헌병대당에게 첫번 심문을 바닷다 대당은 위선 리선생의 일흠을 물은지 오랜것과 항상 경의를 표하고 잇섯다는 것을 말하고 이번 군대해산에 대한 감상이 엇더한가를 물엇다 리선생은 이윽히 생각하더니

『나는 그말에 대답할 필요가 업다고 생각하오』하고 대답을 거절하엿다

헌병대당은 잠간 눈썹을 움지기고 낫을 붉히더니 다시 웃는 낫을 지으며

『대답 아니하신다면 할 수 업지오』하고 다시

『그러면 이번 림창렬의 한 일은 엇더케 생각하십닛가 림창렬은 선생과 여러해 동지오 또 바로 그저께 저녁에 림창렬이 선생 댁을 방문한 줄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즉 림창렬이 자긔의 계획을 반드시 선생께 말슴하엿슬 것이 아님닛가』하고 선생의 눈을 켜다본다

선생은 전과 가치 령당한 태도와 목소리로

『미안하지마는 나는 당신의 물으시는 말에 대하야는 대답할 필요도 업고 또 대답할 의무도 업다고 생각합니다』

이말에 헌병대당은 더 참을 수 업는 모양으로 교의에서 벌떡 닐어나며

『그커 엇재서 대답을 못한단말이야? 나마이서냐!』하고 청을 낸다

그래도 선생은 가만히 잇슬 따름엇다

헌병대당은 안젓다 닐어낫다 하며 팔짱 뭇엇다 『세가!』『나마이서냐!』하는 소리가 련발하엿다 혹 목소리를 나초고 부드러온 말로 엇가지 말을 더블엇스나 선생은 다만

『대답할 필요가 업소』한마듸로 거절하여 버렷다

헌병대당은 몃번이나 선생을 때리라고 대어듬엇다 마츰내 따리지는 아니하엿다

이모양으로 두시간 동안이나 에를 래다가 할일업시 심문이 쯧나서 비록 소리는 내엇스나 리와다 선생은 방으로 돌아 선생의 두암의 근유도 련해 분함으로 경련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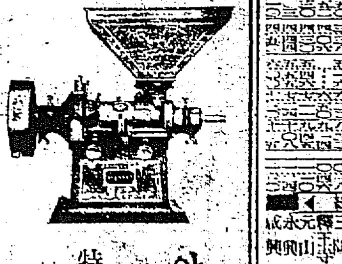
헌병대당은 이번 심문에 아모것도 어든것이 업섯다 분명히 이번 사건의 괴수는 리항인 듯하건마는 아모 증거도 업고 자백도 업다 어케 저녁부터 삼십여명을 붓들어다가 심문하엿스나 거긔서도 리선생이 이사건에 주동자라는 공초는 엇지 못하엿다

헌병대당은 어케부터 밥을 새오고 만흔 사람의 심문을 하기에 심히 피곤하엿고 피곤할사록 신경은 더욱 과민하게 되엇다

헌병대당은 도저히 리선생에게서 아모 말도 어더 드를 수 업슬 줄을 깨달앗다 그러고는 그 날밤 새도록 다른 심여명 사람을 열리가며 주리를 하여 가며 리선생에 관한 말을 들어 내려하엿스나 아모 효력이 업섯다

리선생은 사흘못안에 여섯번 심문을 당하고 마츰내 나흘재되는날 사령부로 넘기엇다

사령부에서는 당국권사령관이 몸소 두어번 만낫스나 선생은 다만 외국관에게 대한 상당한 경의를 표할뿐이오 시국에 관하여서는 한마듸도 입을 열지 아니하엿다 사령부에 넘어간 담々날 동감은 비서관을 선생의 감금실로 보내여 정식으로 면회하기를 청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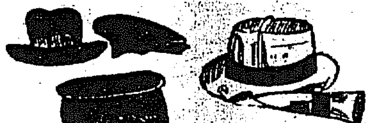


專賣特許 아이에기세루 精米機特賣
部分은 一式이 個別로 供給함
特約販賣店 千代田洋行
大邱上町角 長途話四二五番

移轉廣告
本人이 左記場所에 移轉開業이온바 但極貧患者의게는 無料施診함
京義線 枇峴驛前
南陽醫院
醫師 洪鍵五

大活劇 赤手袋 全一冊
定價參拾五錢 一冊은要先金
本書는 世界的 傑作으로 歐洲列邦에서 數千萬의 人氣를 스으리 歡迎을 博得하던 바 今番에 特別히 朝鮮文으로 翻譯되니 多方으로 일어나는 奇怪事件, 大膽無敵한 惡漢의 行動은 果然 엇더한가 疾風迅雷 石火電光의 巧妙를 極한 行手段을 百千의 讀者로 煩悶케 한 一大活劇이오니 誰某던지 한번 읽어볼 必要가 有하옵나다
發賣所 京城府寬勳町二丁目八八 博文書館 振替京城二〇二三番

帽子界에 覇王
品質說明 五年以內로 破損될念慮도無하옵고 洗濯도自由로되나이다 水木帽가 諸位에게 遺憾이無토록 精密히 製作하엿사오니 諸位 一次試用하심을 伏望



土產品中折帽
白馬尾帽甲種 一打 參拾五圓五拾錢
半馬尾牛亭帽 一打 參拾圓五拾錢
半馬尾京亭帽 一打 貳拾圓五拾錢
全京亭帽 一打 拾四圓四拾錢
水木帽甲種細帶 一打 拾四圓八拾錢
水木帽乙種木帶 一打 拾圓
學生帽 一打 四圓貳拾錢
鳥打帽 一打 四圓
三光製帽工場 平壤府橋口町九十三番地
總販賣所 平壤府南門通二丁目 三光商會 電話一二三八番

新債券 八拾九圓賣價
送料當店負擔 多數한債券 大勉强
一通拾貳圓拾錢
參萬五千圓 當籤番號(七通組)百拾圓
參萬圓 當 同(六通組)八拾圓
貳萬五千圓 當 同(五通組)六拾四圓
二萬圓 當 同(四通組)四拾五圓
一萬五千圓 當 同(三通組)參拾貳圓
壹萬圓 當 同(二通組)廿五圓半
日本勸業證券株式會社大阪支店 大阪市西區信濃橋電車交叉點 振替大阪二六二〇〇番

◆滿六箇月保險證付◆
本品에 堅實함을 保證키爲하야 滿六箇月以內에 使用치못하게될境遇에는 何時든지 新品으로 交換함
KAKUTA 優良고무靴
京城府鍾路四丁目二十四番地(交叉點) 西村護謨工業部出張所 振替京城六四三六番 電信略號(니시무라)
本店大阪 合名會社 西村商店護謨部

等閑하면 못쓸 도라호-무
第一 잘못는目藥에 直治水
其他眼病一切에 特效잇소
直治水

七十餘張의 冊子를 無價進呈
痔疾 곳치는 法을 仔細히 說明한
朝鮮文으로쓴것도이지요
東京市京橋區銀座町一番地 小松壹一郞藥房 電話京橋二九七番 振替東京七一二三番

注意 廣告를보신後當出 ...
當廿五日부터 全部交換
米國유-니버살社 스크링마카청 全一卷
米國 附彫한惡漢 全二卷
米國 鐵拳의戒 全二卷
荒原의銃士 全五卷
大魔王 全十五篇三十卷中 第一回
京城授恩洞 團成社 電話(本局)九五九九番

各色十二種 半個年保證
織女票新案 별표고무靴
京城府北木町貳百七拾六番地
京城織紐株式會社 社長 金性洙
電話本局一一八八番 振替京城一四一七番

潛伏으로出現에
肉體의 純粹은 沒치마라 花柳病을 放擲하면 劉刻으로 病毒의 擴張을 當할지라 由하야 腐敗하며 終乃 累를 子孫에 及할지라
별표고노-루 / 별표사요린 / 주우화민 / 별표산데
星製藥株式會社

服藥家大福音
六味精氣水
蒼生堂乾材局

루얼騷擾益擴大

共產黨의 루얼地方의 騷擾를 二十日을 期하야 伯林外지 擴大코저 計畫한다는 報道가 有하며 도르트문트에서는 共產黨과 警官隊가 衝突하야 十一名의 死者와 六十名의 負傷者를 出하얏더라 (伯林二十九日發)

獨賠償案內交涉

獨逸의 新賠償提議에 關하야는 獨逸政府와 主要經濟, 財政, 農業, 船舶及商業的諸團體勞働同盟間에 아직 確然한 協定을 見함에 至치 못한 듯하나 然이나 內交涉은 進行中이라더라 (伯林二十八日發)

로會議와 未決問題

『앙고라』의 土耳其議會는 講和條約을 批准할는지는 아직 多少間疑問이나 當地의 土耳其新聞記者는 土耳其의 希望하는 것은 金錢이요 領土가 아니라 하얏스며 또 『이스멧트』파 사는 日 今後一週間內에 講和條約은 調印될 듯하나 然이나 아직 解決을 要할 重要問題가 二個가 有하니 卽 土耳其에 在한 外國人에 關한 司法權問題及土耳其公債支拂에 使用할 通貨問題가 是라云々 (로-잔二十七日發)

土國國境決定

『셀비아』의 抗議가 有하얏슴에 不拘하고 外交專門家는 土耳其의 國境을 『말리』河의 北方으로부터 『마리차』까지와 又西方 『카라갓치』에 至하기로 決定하고 更히 土耳其에게는 村落數個所를 領有케 하기로 決定하얏더라 (로-잔二十九日發)

米動員計劃完成
突發的防守戰의 準備

米國參謀本部는 二個年의 苦心을 經한 結果 突發的防守戰에 對한 準備로 徹底的動員計劃을 完成하얏다더라 (紐育二十八日發)

白國內閣과 諸難關

白耳義外相『자스파-』氏가 身病으로 因하야 手術을 要케 되얏슴으로 賠償問題에 關한 佛白兩國代表會議는 當分間無期延期가 되얏스며 又『브랏셀』政府는 六月中旬에 最高會議를 召集하기를 要求하며 更히 一方에는 『루란다-스』의 運動과 白耳義鐵道從業員의 同盟罷業及白耳義工業家가 『루얼』地方의 形勢를 至急히 解決하기를 要求한 故로 『테니-스』內閣은 益々難局에 陷케 되얏더라 (倫敦廿八日發)

戰鬪拋棄發表

愛蘭共和軍은 其首相『데벨레라』가 部下에게 對하야 戰鬪拋棄를 命令한 事實을 發表하얏더라 (『떠부린』二十九日發)

波斯에 大地震

波斯의 『달바치하니달』 附近에 大地震이 有하야 數千名의 死者를 出하얏스며 又『올하갓』든 來報에 依하면 多數한 村落이 破壞되얏다더라 (孟買二十九日發)

黑死病稍蔓延
歐洲各地에

歐洲各地에서 黑死病이 蔓延된다는 報道가 有한바 巴里에서는 旣爲患者를 出하얏슴으로 各汽船에 對하야는 全部檢疫을 勵行하더라 (巴里二十九日發)

馬克時勢又落

獨逸馬克時勢는 如左하더라 (倫敦二十八日發)

英一磅 廿八萬五千七百八十四馬克
米一弗 六萬二千六百六十五馬克
日一圓 三萬九千七百廿七馬克

解決希望尙遼遠
臨城事件의 其後經過

臨城事件은 依然解決할 希望이 無하야 上海의 外人은 其前途를 憂慮하는 中 特히 外人側에서는 公使團의 態度를 軟弱하다 하야 過日同問題에 關하야 在留外人大會를 開催코져 協議中이든바 六月一日 『타운홀』에서 此를 開催한 後 外交團을 鞭撻하야 今後의 平和維持를 促하리라더라 (上海二十九日發)

傍觀的의 張作霖態度
=津浦線土匪事件에 就하야=

張作霖氏는 아직 傍觀的態度를 持續中이나 中央政府의 態度에 對하야 理論上으로 云하면 中國에게 危殆함을 及케 하는 國賊은 一擊之下에 誅戮할 것이나 目下의 事情에는 羞恥를 忍耐하고 土匪의 條件을 容認한 後 彼等을 歸順케 하야 一日이라도 速히 外人을 解放케 하야 外人의 怨恨을 輕減케 하라고 復電하얏더라 (奉天電)

山東督軍交涉費電請

=山東督軍田中玉=氏는 二十九日中央政府에 對하야 土匪交涉費로 十五萬圓을 急送하도록 電請하얏더라 (北京二十九日發)

孫文氏推戴를 熱望
國民外交大會의 通電

國民外交大會에서는 二十八日全國에 通電을 發하야 臨城事件에 對하야 黎總統은 軍閥의 傀儡일 뿐이니 北京政府의 承認을 取消한 後 孫逸仙氏를 總統으로 承認하기를 熱望한다는 旨를 決議하얏더라 (廣東二十八日發)

長江一帶의 排日熱
日本汽船業者의 大打擊

上海를 中心으로 한 長江一帶의 排日風潮는 益々激烈하야 漢口以西는 日貨가 全혀 杜絶된 狀態이라 當地의 排日團體는 日貨의 排斥同盟을 全國에 實施코자 檄文을 配付하고 學生團은 中國商店을 戶別訪問하야 日貨의 有無를 調査하되 若隱匿하는 者가 有하면 愛國心이 無한 者로 認定하야 非國民名簿에 記入하야 一々히 總商會에 報告하고 又運送業者를 脅迫하야 日本汽船에 貨物의 積載를 禁하며 從하야 長江航路의 日本汽船은 多大한 打擊을 受하는바 二十七日上海發漢口에 向하는 日淸汽船岳陽丸은 中國貨物의 積載는 一無하고 僅히 外人의 積荷三百噸을 載하얏슬 뿐이며 尙且當地總會는 日貨排斥을 徹底케 하기 爲하야 近々全國商業團體代表를 招集하야 經濟絶交會議를 開하고 一切方針을 決定할 터이라더라 (上海二十八日發)

顧總長彈劾案
議事上程督促

二個月前에 衆議院으로 送達한 顧維鈞氏의 外交總長彈劾案은 아직外지 議事日程에 編入되지 아니하얏슴으로 國務院에서는 二十九日에 此를 督促하얏더라 (北京二十九日發)

印貨稅法發行
閣議에서 承認

二十九日閣議에서는 張財政總長이 提議한 七百萬元의 印貨稅法發行案을 閣議의 承認을 經하얏더라 (北京二十九日發)

汕頭形勢不穩

海軍省公表=五月二十四日陳軍은 梧州附近에서 許軍을 擊破한 後 汕頭에 迫한 故로 市中이 不穩케 되얏다는 汕頭領事의 情報를 接한 馬公要港部司令官은 其麾下二十三驅逐隊를 汕頭로 派遣하얏더라 (東京電)

今年度新公債

民國十二年度新公債의 償却期限은 六個年으로 明年一月부터 償還을 開始할 터인바 擔保는 鹽稅의 現實五分增加로 因하야 獲得할 收入인데 新公債는 中國銀行이 引受할 터이라더라 (北京)

郵便飛行實施
奉天哈爾賓間

張作霖氏는 計劃中이든 奉天哈爾賓間郵便飛行을 決行코저 不遠間奉天長春哈爾賓間의 試驗飛行을 行할 터인데 其成績에 依하야 東三省各都市에 擴張할 豫定이라더라 (奉天電)

片山潛氏病篤
露政府盡力看護

海參威에 來하얏다가 다시 露都로부터 心臟病을 療養키 爲하야 今春부터 獨逸『바-텐』市의 溫泉에 赴하야 病軀를 調養中이든바 最近極東問題의 解決이 緊急한 形勢임으로 再次勞農政府의 招待에 應하야 露都에 來한 片山潛氏는 昨今病勢沈重함으로 露國政府에서 盡力看護中이라더라 (東京電)

露中會議開催
何時든지 可能

莫斯科大使命을 帶하고 『쏘가-』 『바이린』外一名은 二十九日門司經由東京에 向한바 『바이린』氏는 勞農政府의 北京駐在官인데 氏는 曰 『露中會議의 準備는 旣爲完了되야 『요페』氏가 北京으로 歸하면 何時든지 會議를 開催할 수가 有하나 日露會議는 日本에서 斷然議하지 안이하면 到底히 開催하지 못할 것이라』云々 (門司電)

市長就任裁可

東京市長候補者永田秀次郎氏의 市長就任件은 二十九日夜에 裁可되얏더라 (東京電報)

制限後의 海軍策
節約, 充實二方針

華府會議制限後의 海軍政策은 財部海相이 言明한 經費節約과 內容充實이라는 二大方針에 基하야 調査하는 中인바 來年度豫算面에 表顯케 되리라면 六月上旬에 開催할 海軍省豫算會議에서 實行案을 決議케 될 터인데 其內容은 大略左와 如하더라

一、艦船航空部隊의 內容改善
二、艦隊行動籌品의 增額
三、技術研究部의 擴張
四、出納準備品의 整理

次에 人事行政의 殘務는 前海相의 第二次整理(士官三百名准士官百五十名淘汰)를 그대로 實行할 터이라더라 (東京電)

長官의 意見大要

地方長官會議에 在한 長官의 意見은 大略左와 如하더라 (東京電)

一、(本間長野縣知事) 米穀法에 就하야는 根本策을 樹立할 意思가 無한가 (小原和歌山縣知事) 耕地整理를 國營으로 하는 것이 如何 (山口愛知縣知事) 排水工事制限을 撤廢하는 것이 如何 又地方議會役員을 選擧할 時에 衆議院議員選擧取締法을 適用하는 것이 如何 (山形縣知事)

日露會商問題
討議未決

定例閣議는 二十九日午前十時부터 首相官邸에서 開하얏는바 財部海相을 除한 外各大臣이 出席한 後 外相으로부터 外務省에서 調査한 結果 其他對露政策에 基礎案인 債務問題, 北樺太撤兵의 自由意志行動, 國際信義의 遵守, 尼港事件의 責任承認等을 報告하고 日本의 提案全部가 承認되면 正式承認問題에 對하야도 異議가 無하다는 意向을 說明한 데 對하야 更히 協議한바 閣僚의 意向은 此로써 日露兩國에 對한 豫備交涉을 開始할 事에 就하야는 아직 研究할 餘地가 有하다 하야 一致되지 못할 뿐 안이라 首相의 意向도 有함으로 兩三日中에 更히 協議하기로 한 後 未決한 대로 二時에 散會하얏는바 決定事項은 左와 如하더라

一、印紙로 納附하는 歲入期納에 關한 件中改正件外一件

豫備交涉準備乎!?

二十九日閣議에서는 日露交涉問題는 確實히 光明을 認할 만한 程度에 進하얏스니 卽될 수 잇스면 日露의 關係를 復舊함이 利益이 有하니라는 空氣가 閣議를 包圍함에 至하야 此方針에 依하야 更히 熟慮하게 되얏슴으로 結局外務省의 有力者가 個人의 資格으로 妥協的態度로 『요페』氏와 豫備商議를 進行할 模樣이더라 (東京電)

漁業圓滿進行

海參威에서 露國官憲과 日本水產組合間에는 二十六日에 本契約을 締結한 故로 目下漁獵上에 關한 모든 것은 至極히 圓滿히 進行中인바 今에 北海道及北陸方面에 出航하는 漁船은 二十隻인데 六月中旬外지는 繼續하야 出航할 者도 有하다 하며 漁期는 稍히 遲晩되얏스나 大端한 影響은 無하리라더라 (東京電)

海外發展建策
新國家主義同盟의

高畠素之, 上杉愼吉博士等의 新國家主義同盟의 體育宣傳部長白石好夫氏는 最近南洋으로부터 歸來하야 野澤少將伊藤友次郞氏等과 相議한 後 海外天地에 國家百年의 大計를 樹立치 아니하면 不可하다 하야 海外發展策의 建議案에 學校의 經營, 宣傳, 物產館經營, 當局의 開拓의 各項을 添付하야 國務大臣과 政治家及實業家에게 發送하는 同時에 其實行의 第一着手로 海外專門學校를 目下野澤村에 新築中인데 九月부터 開校할 豫定이라더라 (東京電)

鮮銀移管問題
再燃觀測

鮮銀移管問題는 目下停止된 듯하나 事實은 不然하야 大藏省에서는 滿洲에서 勢力을 張할 鮮銀을 拓殖經濟會議에 移管함을 反對하는 總督府의 攻擊을 與한 後 鮮銀을 大藏省으로 移管할 野心인 듯하다더라 (東京電)

輸金禁止解除
六月中旬公布

日本政府는 年來의 懸案인 金의 輸出禁止를 此際에 解除하기로 決定되야 六月中旬頃에는 右解除에 關한 省令을 公布한 後 卽日施行할 터인바 政府가 如此한 決意를 行함에 至한 今日外지의 經過는 如左하니

一、現在日本의 爲替時勢는 四十九弗로 騰貴하야 平價에 接近한 事
二、每年前例에 徵하야 入超가 出超로 轉換할 時期가 近한 事
三、金의 輸出禁止問題에 對한 世論이 昨今沈靜한 事

等에 鑑하야 今日의 時期로써 金輸出禁止解除의 適當한 時期로 認定된 故로 去二十一日藏相官邸로 西野次官, 森財務, 井上, 土木村日銀正副總裁를 招致한 後 本問題에 就하야 協議한 結果 大臣의 決裁를 得하얏스며 其後首相을 爲始하야 其他閣僚에게도 金解禁의 意嚮을 述하얏는바 此亦異議가 無함으로 目下大藏省內理財局에 命하야 金解禁에 必要한 諸種의 準備를 急하는 中이며 此에 對하야는 商務省에서도 反對치 아니하리라더라 (東京電)

鮮滿財界에 好影響
水間鮮銀總務課長談

別項과 如히 東京電이 報하는 金輸禁止解除의 實施가 鮮滿財界에 及하는 影響에 關하야 朝鮮銀行의 水間總務課長은 左와 如히 語하더라

金輸禁止의 必要한 理由는 外資의 輸入增加를 防止함에 在한바 外資流入의 增加는 物價를 騰貴케 하야 株及三品等定期市場에 其大한 影響을 與할 뿐 안이라 對外債務의 根本的整理를 行키 難함으로 玆에 當局은 長久히 金輸禁止의 政策을 取하얏든 模樣이며 今日에 至하야 此의 解禁을 實施케 되얏다 하면 充分한 外資의 輸入을 見하더라도 無關하리만큼 財界가 安定된 時期에 到達한 것이즉 一般的으로 好影響을 與할 터이며 特히 朝鮮과 如한 貿易이 全然日本內地의 有力한 商人에게 依하야 決斷되는 間接貿易인 故로 日本內地의 商人이 低利한 外資를 得하야 活躍케 되면 必然的朝鮮의 貿易界에도 好況을 誘致함은 勿論이요 又鐵道其他事業等의 永久的事業이 低利資本을 得함에 依하야 業績이 良好케 될 것은 議論을 不俟할 것이니 私鐵合同의 前途等도 頗히 有望할 것이라 要컨대 財界가 不況한 今日에 金解禁의 實施를 見함은 非常한 好時期이라 云々

大學本科內容
長野學務局長談

朝鮮大學本科敷地는 決定치 못하야 當局에서 方今考慮中임으로 近近其確定을 見할 터이며 朝鮮大學本科의 分科組織과 內容에 對하야는 아직 具體的確定이 無하나 最初에 醫, 法, 文의 三分科를 設置할 計劃이며 理工科學部와 如한 것은 先히 醫, 法, 文의 三分科를 施設함이 急務이라는 議論도 有하나 如何間現在朝鮮에는 他에 醫學專門學校가 無함으로 此를 大學으로 昇格한다 하면 醫學專門學校가 消滅될 터임으로 大學分科의 醫科는 別로히 此를 新設할 方針이라 云々

總督、總監의 渡東과 其要務

有吉總監은 去月二十八日에 突然히 東京에 渡하고 再昨日에는 丸山警務局長이 後를 追하야 渡東하는 等 世間에는 頗히 注目함을 値하는 問題가 有하다 하야 種々의 風說이 有한 中에 有吉總監은 來月三四日頃에 東京에 徃할 豫定으로 方今旅裝을 準備하는 中이라 하며 齋藤總督과 丸山局長은 旣히 其渡東의 要務를 明示한 바이 有하나 今番有吉總監의 渡東에 對하야는 아직 何等의 表示가 無하고 다만 表面으로 發表된 것은 日前에 認可된 朝鮮私鐵會社合同에 對한 問題이라 하면 同會社에 對한 社長以下重役의 選定도 今番에 確定되리라 觀測되며 歸任期는 六月下旬頃에 在하리라더라

郡面併合에 就하야
某當局者談

日本에서는 郡村의 併合이 當面의 問題이라 하야 頻數히 論議研究中인바 朝鮮은 其事情이 日本과 相異하야 必히 此에 伴할 必要는 無하나 或特種의 郡又는 面에 對하야는 早晩併合을 要할 者가 不無하나 目下에 迫한 緊急問題는 안이며 다만 日本에서는 郡制를 廢止한 結果로 아직 此에 對한 研究가 無하도다 日本에서는 郡役所에서 執行하든 事務는 純然한 國家의 事務이 되야 事務의 過剩을 生하는 同時에 減少된 郡村의 併合이 時代에 適應하다 思하나 然而朝鮮은 從來부터 面積이 平均되지 못하고 交通이 不便하야 日本과 同樣으로 看做치 못할 事情이 有하며 朝鮮에서는 郡에서 郡務事務를 取扱함으로 非常한 煩雜과 不便을 感하나 如何間郡面併合은 重大問題임으로 根本부터 改造치 아니하면 目下의 情勢로는 十年이나 十五年의 將來에는 郡面의 併合과 如한 것은 實行키 難하다 云々

增配와 拂込如何
有賀殖銀頭取談

殖產銀行配當은 年九分現在率을 增加한다는 說은 從來부터 有하든바 此에 對하야 有賀頭取는 語하되 『株主一部의 要望도 有하고 積立金과 營業收益도 增加하는 故로 來六月末에 終了할 當期決算의 情勢에 鑑하야 一割卽一分增配를 할 것에 對하야 考慮한 바가 有하나 尙今決定한 것은 아니며 又拂込徵收에 對하야는 現在三千萬圓의 資本額中一千五百萬圓의 拂込임으로 相當히 徵收할 餘力이 有하며 近來事業의 發展으로 資金을 如何히 多額으로 準備하야도 充分치 아니하고 拂込의 幾部分에 不過하야 社債募集에 努力하는 現狀임으로 此際幾分이라도 拂込을 徵收함이 適當한 時機이라 할지며 株主中에도 此를 希望하는 者가 有하나 一方에서는 財界不況時에 拂込을 徵收함은 不可하다는 者도 有한 故로 此亦決定치 못하얏다』 云々

東拓利下와 殖銀

東拓鮮滿金融은 從來殖產銀行과 協定하야 其貸付方針을 取하얏는바 今回東拓의 利率引下를 行하얏슴으로 殖銀도 此와 同樣으로 利下를 斷行할 意向이나 此에 對하야는 아직 確定한 바가 업스며 東拓과의 協定이 成立되면 朝鮮內一般利子引下의 傾向을 促進하리라더라

▲東拓
不動產年賦償還 年一割一分
不動產定時償還 年九分三厘
水利組合 年一割一分

▲殖銀
不動產年賦償還 年一割一分
不動產定時償還 年九分三厘
水利組合 年八分五厘

以上과 如히 多少相違가 有하나 大體로 相等함으로 總督府의 監督을 受하야 殖銀도 結局利下를 實行하야 朝鮮內一般利子引下의 傾向을 促進하리라더라

金組手形交換高

京城金融組合五月中手形交換高는 枚數四千五百五十六枚金額五十二萬三千四百八十五圓에 達하야 前月에 比하면 枚數二百二十八枚金額 [illegible] 增加하얏는데 漸次利用者가 增加하는 傾向이 有하다더라

製絲業者協議會

朝鮮製絲業者協議會는 今月末부터 本年度取引 [illegible] 에 關하야 協議하기 爲하야 [illegible] 에 集合하야 意見을 交換하리라더라

辭令

總督府技手 松井淸次郎
任總督府道技師(七等) 上田正雄
總督府道技手 吳台重
任總督府道技師(七等) 福田正雄
任總督府道技師(七等) 金錫泰
任總督府技手(八等) 石原寬一
任總督府道醫院醫官(四等) 原正則
同 宮本元
法務局民事課長 命法務局勤務
(以上五月二十九日)

消息

▲齋藤總督 三十日午後七時二十分東京驛着(東京電)
▲有吉總監 昨日午後七時早 大連에 出張中이든바 三十一日午前七時京城驛着列車로 歸任
▲安藤又三郞氏(滿鐵京城局長) 關係者二十名을 招待
▲金商英氏(安東縣副領事) 三十日朝入京
▲李仁氏(辯護士) 渡東中이더니 二十九日歸京
▲前田騎兵司令官 羅南騎兵隊巡視키 爲하야 往復二十日間豫定으로 一日午前京城驛發
▲英國의 中國艦隊는 二十九日仁川入港하얏는바 昨日午前에 艦長以下四名이 總督府를 訪問하고 同十二時半에는 有吉總監이 同官邸에서 開催한 午餐會에 出席
▲米國陸軍省次官一行五名은 廿九日午後十一時十分發列車로 安東에 發向

京城土木工事
着手順序

京城府本年度土木工事着手順序는 槪要左와 如하다더라

一、相山高地排水工事 前年度에 繼續하야 本月中旬에 竣工할 豫定
二、下水改修工事 旭川本流의 前年度繼續分과 淸溪川의 六號十號幹線等으로 全工費約二十五萬圓인바 近々入札에 附할 터이며
三、幹線道路改修 旣히 設計를 終了하얏스며
四、本町通改修 旣히 設計를 終了하얏스나 地下埋物의 整理와 住民의 寄附金이 三分의 二가 取集됨을 要하는바 大槪七月下旬부터 着手하리라 하며
五、府廳舍新築 大體設計는 略定하얏스나 移轉時期가 未定임으로 着手는 大正十四年度中에 在하리라더라
六、公園擴張工事 目下設計中이라더라

府內小包郵便

大正十一年度府內各局所取扱에 係한 小包郵便物數는 引受七十六萬八千四百八十七個配達四十二萬二千六百五十五個인바 此를 前年度에 比하면 引受는 三分四厘配達은 四分五厘의 增加이라더라

鮮銀副總裁後任

鮮銀의 鹿野副總裁는 六月에 任期가 滿了되는바 其重任의 意嚮이 無한 模樣임으로 其後任은 旣報와 如히 理事鈴木穆氏의 任命을 見하리라더라 (東京電)

船體保險開始

朝鮮火災保險會社에서는 從來船體保險을 取扱치 아니하얏든바 本月一日부터 此를 開始하야 三十日外지 約一萬二千圓의 契約을 締結하얏스며 尙各種契約高는 七千萬圓에 達하야 四月末에 比하면 約二百萬圓의 增加인바 其內容은 火災四千八百萬圓海上八百萬圓運送千八百萬圓이더라

日鮮滿電信會議

遞信省에서는 六月五日부터 四日間日本朝鮮及滿洲等의 主要局電信課長會議를 開催할 터이라는바 朝鮮에서 出席할 人員은 ▲京城郵便局電信課長伊東捨藏 ▲釜山郵便局電信課長足立文佐 ▲京城郵便局電信課長永井十太郎 ▲元山郵便局電信課長大島厚等의 四氏라더라

樓說堅說

▲滿洲方面에 對한 日本政府의 政策과 가치 亂雜利察한 것은 他에 例를 求키가 오히려 困難할 듯하다 ▲外務省과 朝鮮總督府에서는 在外朝鮮人에 對한 經費로 每年不少한 金額을 支出하는 說이 잇스니 朝鮮人의 敎育과 醫療機關에 關한 費用을 除한 外에 其大部分은 密偵養成費이니 朝鮮人의 親日標榜者口腹之故이나 親日標榜者와 密偵이 如何한가 密偵이나 親日標榜者는 官權의 威勢를 背負하고 無辜한 在留朝鮮人을 困苦케 하는 事가 甚多한 것은 滿洲의 一區에 一次이라도 足跡을 印한 者는 何人이든지 熟知하는 바이다 ▲더욱이 所謂保民會一派의 無賴輩가 武器를 携帶하고 僻地로 橫行하면서 同胞의 生命에 危害를 加하는 事도 關係當局者가 知치 못할 理由가 업다 ▲그러면 何故로 關係當局者는 此의 防止를 講究치 아니하는가 吾人은 此에 疑訝하는 바이라 하며 李大總領事의 交迭이 有한 機會에 一言의 注意를 喚起코저 한다

商況

◎鮮銀行券 (廿九日) [illegible]
◎日銀概況 (廿八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發行力 [illegible] 貸出高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三十日) 枚數 [illegible] 金額 一九三六九九三

外國經濟電報

倫敦銀塊 同日倫敦銀塊市場相場은 三十一片三分之一이며 前日보다 八分之一下落이라
紐育銀塊 同日紐育銀塊相場은 [illegible]
紐育棉花 同日紐育棉花相場은 [illegible]

株式市場

京株賣買高 三十日의 京株市場의 賣買高는 如左하더라
甲部 一千七百四十枚
乙部 一
短期 四千八百七十枚

京取保勢
硬軟兩派大勢觀望

[illegible]

京株賣買價 (卅日)

株名		前場今週	前場來週	後場今週	後場來週
京取	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取	寄	[illegible]	—	[illegible]	—
	止	—	—	—	—
同新	寄	[illegible]	—	[illegible]	—
	止	—	—	—	—
鮮銀	寄	[illegible]	—	[illegible]	—
	止	—	—	—	—
同新	寄	[illegible]	—	[illegible]	—
	止	—	—	—	—
殖銀	寄	[illegible]	—	[illegible]	—
	止	—	—	—	—
同新	寄	—	—	[illegible]	—
	止	—	—	—	—
實銀	寄	[illegible]	—	[illegible]	—
	止	—	—	—	—
商銀	寄	[illegible]	—	[illegible]	—
	止	—	—	—	—
同新	寄	[illegible]	—	[illegible]	—
	止	—	—	—	—
漢銀	寄	[illegible]	—	[illegible]	—
	止	—	—	—	—
同新	寄	[illegible]	—	[illegible]	—
	止	—	—	—	—

株名		前場今週	前場來週	後場今週	後場來週
韓一	寄	[illegible]	—	[illegible]	—
東拓	寄	[illegible]	—	[illegible]	—
同新	寄	[illegible]	—	[illegible]	—
鮮土	寄	[illegible]	—	[illegible]	—
朝紡	寄	[illegible]	—	[illegible]	—
滿毛	寄	[illegible]	—	[illegible]	—
京電	寄	[illegible]	—	[illegible]	—
電興	寄	[illegible]	—	[illegible]	—
釜瓦	寄	[illegible]	—	[illegible]	—
朝鄉	寄	[illegible]	—	[illegible]	—
殖鐵	寄	[illegible]	—	[illegible]	—
中鐵	寄	[illegible]	—	[illegible]	—
同新	寄	[illegible]	—	[illegible]	—

株名		前場今週	前場來週	後場今週	後場來週
圖們	寄	[illegible]	—	[illegible]	—
京南	寄	[illegible]	—	[illegible]	—
金剛	寄	[illegible]	—	[illegible]	—
南鮮	寄	[illegible]	—	[illegible]	—
滿鐵	寄	[illegible]	—	[illegible]	—
同新	寄	[illegible]	—	[illegible]	—
東電	寄	[illegible]	—	[illegible]	—
同新	寄	[illegible]	—	[illegible]	—
現信	寄	[illegible]	—	[illegible]	—
取信	寄	[illegible]	—	[illegible]	—
朝信	寄	[illegible]	—	[illegible]	—
穀信	寄	[illegible]	—	[illegible]	—

仁川期米市場
今月納會如何

[illegible]

短期取引

三十日 [illegible]

大阪三品 (三十日前場)

[illegible]

綿絲布木時勢
朝鮮產綿布 (一疋)

[illegible]

仁川日用物價

[illegible]

在外同胞慰問會員芳名 (四九)

[illegible]

商況 仁川期米

昨日阪地步調는 前場初付三十五錢 ... 低價로 九十八錢外지 高付하야 八十八錢으로 ... (remainder illegible)

	公定價格
一節	二十八圓八十二錢
二節	二十八圓七十八錢
三節	二十八圓七十八錢
四節	二十八圓七十三錢

同日後場	
先限	二十八圓九十錢
初付	二十八圓九十九錢
止値	二十八圓九十九錢

大阪期米 三十日

三節	二十八圓九十四錢
四節	二十八圓八十七錢
五節	二十八圓九十三錢
五節	三四,七九 三四,九六
六節	三四,七九 三五,〇六
七節	三四,八六
八節	三四,九四

ClibPDF - www.fastio.com

六十年前에 殉敎한 崔水雲이 復活

하엿다고 엉터리업는 거짓말
축하식을거행하다가 대소란

작삼십일 상오구시반부터 시내계동(桂洞)십오번디에 지난 이십팔일부터 『텬도교령우구락부』라는패가 붓더니 텬도교 김순원(金純元) 권병덕(權秉悳)등씨주선으로 죽엇다가 사러낫다하는 텬도교조최제우(崔濟愚)선생의 데일백이회의 탄생긔념축하연을 열고 모혀드는 교도에게는 한사람압헤 평균일원가량의 헌금(獻金)을 밧고 열사람식 반날난호와 소위재생하엿다하는 최제우선생에게 참배를 식히엇다

이풍설을 들은 텬도교중앙총부에서는 처음김옥빈(金玉斌)씨외 몃사람이 가서 임의도라가신 최선생이 회생하시엇단말이 웬말이냐고 질문을 개시함에 령우구락부당사자는 백방으로 말을피하얏섯다 참다못한 텬도교 중앙총부편에서는 다시 차상찬(車相瓚)씨외의 삼십여명이 축하식현장에 몰녀갓다 그쌔에는 마츰 권병덕(權秉悳)씨의소개연설이 잇섯는대 그연설중에는 비로소 이번에 낫하난이는 수운대사(水雲大師) 최제우씨의 령혼을밧앗다는 가장몽롱한 말을하얏다 이소리를듯던 일반청중은 거우자긔들의 **속은줄을** 알고 올분하는중에 차상찬씨가 낫하나『어리정말최제우씨가 사라계시면 당사에게나서서 한마듸 말이라도하게하여달나』하며 뒤틀이어 『최제우씨가 정말 부활하시엇스면 물과 불을 두려워아니하실것이니화로에손을 좀 대워보라』는등 여러가지 비난과공격이 쏫을이워이러나더니 극도로분개한 차상찬씨는 요리상을드러 최제우라는 로인에게부서 자칭최제우라는 로인은 온몸에 육식투성이를하얏고 또일편에서는『로인은다만리용만된 모양이니 결문놈을 때려라』하는 의론이이러나 **일장격투** 가 나게되얏섯다 급보를드른 종로서삼륜(三輪)고등계 주임 구보(久保)경부보이하 십여명의 경관이출동하야 열두시경에 겨우진압하하고 최제우라일컷는 로인은곳 종로서로 다려왓다더라

부활된최수운이라는 리상룡

億兆蒼生을 수화중에서 구코저나왓다

괴괴한그네들의하는말

구한국시대에 임의 참혹한사형에처벌되야바린 텬도교의 수운대사최제우(水雲大師崔濟愚)씨가 다시사라낫다는 괴괴한풍설이 이러낫다 그는사형에 처벌되기전에 임의그가는될운이 닥처올줄을 알고 자긔는 이세상에서 몸을쌔켜 광중텬(光中天)에감초엇고 다른교도로하야금 자긔몸을 대신케하얏섯다한다 그이후로 산중에은거하다가 도모지세상은 점々어지러워만가고 조선의종교계는권혀

야소교에● 기우려커 밋지못할사람들에● 독립운동을 의탁하는것을보고 참다못하야 다시낫하낫스며 또한가지는 닥쳐오는큰홍수 큰돌님병 큰감옴을 막지아니면 이런난민중은 도저히목숨을구케키 어렵겟슴으로 자긔가 낫타낫스니 인제부터사분오열되야 어지럽기 한이업는 텬도교를 자긔가 권부통일하야 억조창생을 다시락원으로 잇슬겟다고 일컬으며 자긔를따려서 행복을 누리랴거든 자긔의가르침을밋으라고황해도(黃海道)해주신천(海州 信川)등디로 도라다니다가 금월상순에 경성에나타난것이다

弟子의 懇請으로

다만텬도교를 통일코자햇다

최제우라던당자의말

자칭최제우라는 로인은 충청남도례산군(忠南禮山郡)사람으로 리상룡(李尙龍)이라는사람인데 가장오래인 텬도교도로 일즉이 산중에은거하며 [illegible] 리유하야 병을고치는 진리를 통하얏다하며 더방으로 배회하는중마츰 임의고인이된 손병희(孫秉熙)씨의 간병을하다가 삼패에 도라간임도잇섯다한다 그로인의 말에는 자긔는다만여러케자의간청에의지하야란마와가치얼크러진 텬도교를 통일하고자한것이라하며 문데의 주인공은 도로혀 엇지된사유조차 모르는모양으로 경찰서에서도 정신이업시 섯는것을보아서는 필경이인물을한재료로삼아 무슨다른음해하는 부정배가잇는것이분명하더라

全然問題도 아니오

만일문데가된다하면다만 텬도교령우구락부란명칭

텬도교중앙총부간부의말

이에 대하야 텬도교편의 의견을 들은즉 모씨는 말하되『방금유신도사라잇다는 우리텬도교(天道敎)의데일세교주최제우(第一世敎主崔濟愚)선생은 지금부터 팔십일년전갑신(甲申)십월이십팔일 경상북도 경주군 가뎡리(慶北慶州郡柯亭里)에서 출생하얏습니다 그래서 사십세에 십이월십일새벽에 조뎡의엄명으로 당시의선전관(宣傳官)뎡구룡(鄭龜龍)에게데포되야 그이듬해정월륙일에대구관찰도(大邱觀察道)에이르러 당시의감사서희순(徐熙淳)의심문을 바더 젼후 **스물두번** 의혹형을밧다가 삼월십일에장대(將臺)에서이세상을떠나셧슴니다 그래서그시톄는 그때의 데자들이모시다가 경주의 구미산(龜尾山)에잇는룡담(龍潭)가에안장하얏슴니다 이것이우리선생의분명한 력사외다 그런데지금와서 이런괴괴한사실을만들어내인 [illegible] 사람이 잇슴니당그려! 우리는불돈부ㅣ함니다 더구나 그사실의내면에는더욱괴괴한일이

만혼줄로 생각합니다다만우리가지금문뎨를삼는다하면 구『텬도교령우구락부』(天道敎靈友俱樂部)라는 명칭ㅣ올시다 우리텬도교와는아무관계도업는 허무맹랑한 사람을중심으로 한 일종의 미신뎍무엇에다가 우리 텬도교의 이름을씨우는것이 안된것이요또는 모든것을 주장한다는 텬도교권 서무과댱권병덕(天道敎前庶務課長權秉悳)씨가 스사로텬도교도라하면서도텬도교조의 내력과 다른엇던사람을교조가부활하얏다고떠드는일도참 모를일이외다 어케 권씨가종부에와서

그와가흔 말을하고곡수권의교도가 잇는터인즉 텬도교와 합하는것이 엇더하냐는등요령도 알수업는말을하고 간일이 잇슴니다』하더라

北川勞働共濟會에서 直接行動을 決議

무리한디주의소유토디는 회원이공동경작하기로해

진주로동공제회 하동북천 지회(晋州勞働共濟會河東北川支會)에서는 작년가을부터 무리한디주들을대항하야 여러가지 분쟁이 이러나오던바 그지회 회원중에서 디세를안물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작을당한사람이 다수에달하며 북천면(北川面) 안에서만 이분쟁으로인하야 이작된토디가 칠백여두락에 일은지라 그와가치생뢰이 떨어진

농민들은 인심이 흉々하야 닥는곳으로 이사를하고자하엿스며 동면내에는 사람이살지못하리라고까지 떠들던중 동디공제회간부에서 고심노력한결과 칠백두락의토디는 원만히해결이되고 일반농가에서도 대부분안도되엿스나 홀로 산청군읍내서동(山淸郡邑內栖洞)정호선(鄭鎬善)씨는 여전히 완고스러히 계주장하야 권기 북천면에잇는 소유디오십여두락을종시이작하엿슴으로 동면공제회원 일천여명이 오월이십삼일 오후두시에동회관에모히여 여러가지로 토의한결과

정호선의 토디 오십두락은 즉권으로 공동경작하기를 결의하고 로동자의 품싹는자고 그경찰서에서 먹고오는사람에게는 하로에 백미두되 그러치아니한사람에게는 하로에 백미한되식을 줄터이며 고용인(傭人)에게는 새경으로 일년에 청조칠십두식을주기로 결뎡하되 만일이에 응치아니하는자에게는 교제와수화를 통치안코 로동을가치안키로하엿스며 또엇더한 토디를물론하고 소작권을 변경하거나 새소작인이 경작케되면

회원전톄 가일어나서 소々가지는대로 긔계가잇는대로 각모물을 심으기로한결과 권긔오십여두락에대하야는 신구소작인이 제각기양판을만들엇슴즉 이앙할 시긔가되면 큰분징이일어나리라더라(진주)

東九陵行

륙월일일오전에

리왕뎐하께압서는 륙월이일 오전구시에 창덕궁을납시어 양주군(楊州郡) 동구릉(東九陵)에 이르사 문조황뎨(文祖皇帝)어릉과 및각릉에 참배하압신후 오후두시경에 환궁하실터이라더라

大韓義軍府 重要幹部

다음과갓다고

요사이 모처로온정보에 의하면 대한의군부(大韓義軍府)의중요한간부는 다음과갓다더라

總裁府	都總裁	朴長浩
	副總裁	蔡相眞
政務部長		金有聲
警察局長		桂 聃
交通局長		韓鼎潤
軍務部長		吳錫泳
財務部長		李炳基
學務部長		成賓運
經理局長		趙大能
參謀部長		金璧振
忠勇軍隊長		朴日楚

午橋强盜控訴

징역팔년에불복하고

지나간사월 구일오후 열한시에 연창수(延昌洙)와 공모하야가지고 시내종로오뎡목(鍾路五丁目) 마진편에잇는 오교(午橋)우에서 마참그곳으로 지나가는 김뎜석(金點石)을 단노로쏏너 치료일개월의 상처를내고 금권을강탈코저한 김순오(金順五)에대한사건은 경성디방법원에서 삼십일판사의손으로 지나간십칠일에 징역팔년의언도가 잇섯는데 피고는 이에불복하고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 데긔하엿더라

逢賊하엿다誣告

경찰서를소동

얼마전부터 수원경찰서(水原警察署)에서는 비밀리에 사법계원권부가 총출동하야 대착동을한일이 잇섯다 이제 그내용을들은즉 지나간이십일일 오후두시경에 진위군 포승면도리리(振威郡浦升面道里)에거우유상(牛肉商)을하는 김의식(金義植)(ㄹ)는 자긔집을떠나 수원면(水原面)에잇는 발안(發安)장터로 향하는길에 수원군당안면(水原郡長安面)『속도락』이라는산속을

지나갈때 엇던강도 한명을맛나 단도로위협을당하고 현금사십원을 빼앗긴후 그자의뒤를미행하다가 필경은 그자에게 발각되어 채이기까지 하엿다고하야 피해자로부터 이보고를접하고 그경찰서에서는 그와가치활동한것이라하며 그경찰서에서는 사면으로 범인의자취를엄숙히 수색하엿스나 아모단서가업슴으로 나중은 피해자를자세히 조사하여본즉 그것은 그림자도 업는 거짓말임으로 동서에서는 엄중히취조하는중이라더라

里民이結束하야 東拓에對抗

터세를너무우리하게밧는다하야

고양군 숭인면 용두리와 신설리(高陽郡崇仁面龍頭里新設里)두곳에사는 인민의집터는 동척회사와 경성부와 그외몃개인의소유디인바 경성부쌍은 매평에디세입권사리식 대정구년부터 삼구년까지 특종계약이되얏고 개인소유디로는 리원숙(李源昇)씨의소유디는 매평사전식 류해창(柳海昌)씨의 소유디는매평에칠전식이오그외장인근(張寅根)과 탁긔헌(卓基憲)조진태(趙鎭泰)씨등의소유디도각각

수십호식 뎜음 요구하고 다무료로살어오든바 유독동양척식회사의쌍은대정십년도에 매평십오전씩 십이년도에 이십칠전씩 이라고 반포후명안가 무조건으로 오전씩를 더바드라하는중이라 이와가치년々히 올나가는 세금을내다가는 나중에는 경가파산할디경이라하야 주민일동은 금번개회되는소작인상조회뎡긔총회를 긔회삼아 신설리에상조회 데일지부를 설립하고 동척회사와 교섭하여원만한 해결을하라고한다는데 동척회사에서는 사원을 보내여 계약을데결하라고 매일독촉하나 주민일동은 결속을 단々히하고 강경히 거절한다더라

開原縣의 水田排斥

중국인이 창으로동포를찔러
데일비참한것은그네의자녀

요사이 중국인이 조선사람의수뎐경영을 배척한다함은 임의보도한바어니와 요사히개원현(開原縣)에서도 그곳에허커사는동포를 구축한다는 권설이잇는바 개원현사하보(開原縣沙河堡)란 곳에서는 중국인이장모란 사람의 쌍 수십일경을년조(年租)로 어더 수년전개간하기로 계약하고 파종하가 느긔감으로 지난오월이십이일부터 농을시작한축 별안간 강모라는 중국사람이창을가지고와서 욕설을하며 이쌍은나의쌍이니논을못한다고하며 [illegible] 농포한사람이 나서서 사실을말하나 중국인은 듯지안코욕설을하며 위협을하나 동포들은 듯지안코 일을하는데 별안간에권과 강모가 가지고왓든창으로 김리준(金利俊)(『』)이란동포의좌편 억개를쩔너 인사불성에 일으게 하엿는데 쇠든중국사람은 그즉시 도망하여가는것을 함세일하던 동포들이 즉시잡어서중국관헌에게 인도하고 중상을당한김리준은 렬령공애의원(鐵嶺共愛醫院)에입원케하여 응급치료를 한바 생명에는관계가업스나 상처는 매단하다하며 일반동포들의말하는바를드른면

이번일이 처음이 아니오 근래에 흔히 잇는일이라고 한다 지금 남북만주방々곡々에 거주하지마는 개원방면에만 오천명의동포가잇는데 그들을 축출식힌다고 요사이에 벗적떠드나누가 보호하여주며 어느누가생각한닛가 학대를당하는것도 우리동포 봄상한것도 남북만주에흔터커잇는 우리동포지요 생활권도는 말할수업지마는 지금몃가치피어나온자대는 매호에 평균사오명인데 한부락을 계산하면 삼사십명의 아동이잇스나 교육이란것은 조금도 모른다더라 그것이 데일괴 막히는 일이라하더라(텰령)

改良溫突宣傳

시내에포스타를 배부하기로하엿다

면료(燃料)를절약하고도방안을 쌋듯하며 더라서 생활(生活)을향상할수잇는개량온돌(改良溫突)에대하야 경긔도에서는일반에게 널히선뎐코저 렵실노력중이라함은 본보에 임이보도한바이어니와 이에대하야 경긔도에서는 경찰부 보안과(保安課)와디방과(地方課)보안부과(林務課)에서서로 협력하야가지고 그선뎐준비에 분주하든바 임이 그준비가 완성되엿슴으로 맛참내오는륙월일일을긔회로하야 경긔도관내에 일천장가량의 선뎐『포스타─』와오만장가량의 선뎐『비라』를배부하고다々뎍으로선뎐할터이라더라

美展은今日終了

금년에는 삼만의 입장

영락명상품진렬관(永樂町商品陳列館)에서 개최중인 데이회조선미술뎐람회(朝鮮美術展覽會)는 금월십일일부터공개하야 과가치 마칠터인바 이십팔일까지 입장한사람의수효는 총계이만칠천사백구인에달하야작년총계보다 삼백여명이 부족하나 작금량일에 상권병가령은 드러올뜻함으로 마치는날까지의 총계는무려 삼만명은 될터임으로 통계로보면 작년보다 약이천명이상의입장자가 더잇슬모양이며 출품중에팔린것이 륙십점이라는바 뎐람회는 권긔와가치 금일까지마치고입상(入賞)한사람들의상장수여식은 오는 [illegible]

心身鍛鍊講習

각단테의후원으로

개성유지의 발긔로 심신단련법강습회(心身鍛鍊法講習會)를조직하고 개성상우회(開城商友會)동아일보개성지국(東亞日報開城支局)의 후원으로써 오는륙월일일 오후구시삼십분부터 백목좌전가(白木座前家)안에서 개회할터이라는대 그강법은심히간단하며 강습기한은 불과이십일동안이면 능히배홀수가잇스며 그주요되는것은 심신을 근강케하야 관단련 양성피단행된얍 중진케할뿐아니라 모든병을 치료할수가잇는중 케원수운것은 위병(胃病)신경쇠약 두통 뇌면증 폐병신장병등이라하며 이번에 이회가열림이커음인고로인원수를 삼사십명내외로모집하야교수할터인대강사(講師)는일본속이일본 동경에서 유학하야 이에대한연구가 만흔박재청(朴在淸)씨라더라(개성)

市內에徘徊하는 不良輩

대검거를하엿다

수일동안 종로서 사법계에서는 형사의일대가 시내 각디로활동을개시하더니 과연년래로 시내각처에 배회하며 사긔도박과시골사람을속혀먹기로직업을삼는 불량배의 일단을 검거키로하얏는데 임의수명은 데포이치되얏스며 아즉도 미데포된자가 십여인이나되야 매오사건은 확대될터이며 이것으로써 불량배의 물락을보리라더라

嶠南學友會館 建築期成會

위원을뽑엇다

교남학우회(嶠南學友會)는 교남사람으로 경성(京城)에 류학하는 학생으로써 조직된회인데 그력사가 자못오래서 지금으로부터 [illegible] 창립된회이라 지금은그학생이 수천명에달하야 여러가지방면으로 복잡한일이만히잇스며 따라서 그학우회관이 필요하게 되엿슴으로 작년 [illegible] 그학우회관건축긔성회(建築期成會)를조직하고 삼만원의비용을드려 오는 구월십오일이내로 건축하기로한후 그 긔성사무소를 시내관훈동(寬勳洞)이십팔번디에두고 방금활동중이라는데 그위원의 씨명은 다음과갓더라

特別委員 高元勳 朴東輔 黃鍾東 [illegible] 吉相 金瑞鄕 李川成 林[illegible] 來 尹命熙 外十四人

常務委員 金思淳 高元勳 黃基淵 [illegible] 金崇植 朴容彬 [illegible] 桂 金周燮 朴鍾岑 朴[illegible]

水害담에旱災

하해도봉산디방

봉산군(鳳山郡)에는 작년수해로 막대한손해를당한바 금년에는 도로혀 비가 지금까지 오지아니하야 일반농민들은 비오기를 고대한다더라(사리원)

江界에暴風雨

손해가막대하다

평안북도강계(平安北道江界)디방은 지난이십사일오후에 약한시간동안 폭풍우가이러나서 산의 곡물을쐬그며 가옥을파괴하는등 손해가 적지안타더라(강계)

日本靑森大火

일배이십호소실

이십팔일 오후팔시경에 청삼현삼호군무호촌(靑森縣三戶郡[illegible]村)에잇는판부(坂部)라는사람의 집에서불이나서 그부근의일배이십호를태우고그다음 [illegible] 오전두시경에 진화하엿는데 손해와 원인은방금조사중이라더라(동경뎐보)

過激宣傳의女俳優

이십여명이중국에들어왓다고

로농정부에서는 과격사상을 선뎐하기위하야 수차 녀자배우를 동지연선(東支沿線)에 파견한것은 본보에수삼차 보도한바이어니와 본년삼월에『모스코』연극학교를 졸업한자중에 이십사명을 역시동지연선에 파견하엿다는데 그들은 지나간사월중순에 『치다』에 도착하엿는데 그중에서 의일단과 『니나·다말뤼희』(二)외 비명의일단은 임의『치다』를 떠나 남편으로다려왓다하며 그리하고 『치다』선뎐희곡를 좃칩한십팔명도 역시이달상순에『치다』를 떠나 『합이빈』으로 드러왓다는데 그들은 로농당표의명령을 밧아가지고 활동중이라하며 중국관헌은 엄중히경계중이라더라 (봉춘뎐보)

永樂町에棄兒

나은지두달된것을

요사히 어린아해를나서 남의집문간에 버리는일이 자조생기는데 재작일에도 또그와갓혼일이 생기엇다 재작일 오후비시삼십분경에 시내영락명일뎡목(永樂町一丁目)마장번디 일본사람 이신[illegible] 집압헤 나은지 두달된것을 버리고 가서 그자세한 사실은 아직알수가 업더라 (해삼위이십삼일뎐보)

列車、鐵橋에서墜落

사망한승객이 십팔명이다

흑룡렬도(黑龍鐵道)에잇는『체』데길(馬揚嶺)의집 하(河)텰교에서 십팔일에 해삼위를 떠나가든급행렬차가 탈선되야 쩌러커 사망자가 이십팔명과 중경상자 륙십명을 내엿다는 말이 잇는대 그자세한 사실은 아직알수가 업더라 (해삼위이십삼일뎐보)

그뒤분간에 나흔지 한달이나되는 계집아해를 버린사건이 잇서 소관본뎡서에서 렴검한결과 의복등여러가지로보아 조선사람의아해로 판명되얏스며 범인은 아즉알수업스나 생활곤난으로 그와가치버린것인듯하다더라

吉林에 一心協力會

대규모의농업을경영한다고

길림성(吉林省)안에잇는이천만의농업을경영하다하며 그일신세운동베에 조직된 일심협력회(一心協力會)는요사히 조돌면 리뎡(?)(孫逸仙)이 ... 고히하고 지금을엇기위하야 외사람이오 회원들은『합이빈』혜목(頴稷)오상(五常)두현에 달는 삼위(海參威)『포셋트』『텔펀』(鐵嶺)등디에잇는데 그수효가삼백이라는 사람의지도아래 여명에달한다더라(모퀴커보)

嚴福童君優勝

대련에서일등에

자전거에 대장노릇하는 엄복동(嚴福童)군은 임의보도한바와가치 지나간이십일 대련시봉판뎡(大連市逢阪町)운동장에서열닌 자전거대경주회에 원정차로 떠낫섯는데 개최일되는 이십일아참부터 모혀드는관람자는 무려오만여명에 달한중에 특히조선인관람자가 만허서 엄군의우승을열광뎍으로바라며 몹시의 원하엿다 만나종일류선수의칠십주경주가 시작되며 장내는더욱이긴장하여지며엄선수는 튼튼한긔운과용맹한자세로출장하야 경기는 시작되엿다 일본서는지더니 조선인은 더욱이 뛰놀엇다 다이에 엄선수는 줄곳다섯바퀴를압서곳코돌매 일본인들은 하품을하며 허틀내돌는모양은 장관이 엇든바 최후결승 [illegible] 이되고 일본인이 산착으로 [illegible] 만세창리에 엄선수는 우승과 [illegible] 은시계와 만주일일신문사 긔증의 [illegible] 를 가지고 [illegible] 조선동포의 환호중에 자동차에 엄선수를 태우고 시니를 일주할때마다 조선인의 만세성은 우뢰갓다며 미증유의 성황을 이루엇는데 밤에는동포의 밥지고로 엄선수를 위하야 환영회가열니니 [illegible]

天氣豫報	
日出 上午五時三十四分	日入 下午七時二十七分
最高 二二·六	最低 一四·八
時晴	

◆휴지통

▲데이회조선미술뎐람회도 금일로써 종료되며 개회중에는 다수한입상자가잇서 매우성황이엇다 ▲이약이는 당초 심사원이지만 조선원류의 심사위원은 한사람업시 [illegible] 한다 ▲그중에 동양화는 [illegible] 모씨외 [illegible] 심사원이모여안저 출품을 결뎡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illegible] 투표를 [illegible] 조선인편의 모씨외 세사람이 [illegible] 비록투표의 결과라도 이글씨가 락선되엿다 ▲그런데 일본인인 단구씨두사람 이외에 이러이러한것이라다시 [illegible] 이번에는 굴씨가아니라 거우입선되엿다 ▲그러나 심사에대한 불평이만 엿다하지만은 굴씨의심사도 이 모양가터서는 목청화합는지

强盜二名

쏘데포되엿다

지나간이십팔일 오후에 경긔도 경찰부 형사과에서는 시내각처에 [illegible] 와서는 경긔도관내로 도리단이며 금품을강탈하고 사람을살부 [illegible] 강도단의 [illegible] 명이 잇다하는 본보에 임이 보도 [illegible] 吳昌植、鄭 [illegible] 金尙文、 [illegible] 李炳吉、朴[illegible]

七十老人이作孼

산보하다가

양주군미해면 방학리(楊州郡[illegible]海面放鶴里) 신길휴(申吉休)씨는 [illegible]

寸虫藥
本劑는現今東西洋醫學界에서 最新處方에 依하야 特効한 新藥으로 寸虫患者諸位는安心使用하시옵소서
定價 三日分金壹圓五十錢
京城府鍾路 [illegible] 東洋賣藥商會

賣家 仁寺洞 [illegible]

모기장 蚊帳
特別廉價大提供
쥬란사 모기장 / 쳥포 모기장 / 운자 모기장 / 심초 모기장 / 망사 모기장
萬物床廛 太德奎
同業諸位 喜消息

止毛材料

상구代用品

職業
豊國總本店

六〇六號代用內服藥
梅毒新藥 ヨートカリ丸
販賣所 博愛堂

新入荷
特價六圓五拾錢
學生時計
信鍾堂時計店

特約購買人 出張員
特約店大募集
目錄書 特價表
呈進 請求
上海 指南 興業
洋服 洋靴 洋襪 時計 眼鏡 機械
特 提 價 供

高麗人蔘特割廉賣
普信人蔘商會

本組合에는
委托部 營業部 工場部
朝鮮物産消費組合
仁川府內里
專務 金元奎

ClibPDF - www.fastio.com

軟 保勢

◆朝天候는 阪雨仁晴에 各地氣配는 다弱한便으로 傳하엿더라 ▲八十九錢에 始하야 九十錢이 有할더니 大阪止値七十四錢을 傳하니 二十八圓八十二錢에 初付하다 [illegible] 七十九錢을 高値로 七十六錢이 低値되여 細刻하다가 七十七錢으로 止하다 ▲第二節 當은 二十七圓九十錢에 付하야 [illegible] ▲第六節 當中兩限은 不成에 先 [illegible]

	高値	低値
當	二十八圓九十三	二十八圓七十錢
中	二十八圓九十八	
先	二十七圓六十錢	二十八圓十錢

民大各地郡部
會寧孟山鐵原倘州

一會寧 郡에서는過般來民立大學期成會々寧郡地方部組織準備에對하야各方으로準備에奔忙中이라함은旣報와如하거니와其後郡內各面에서募集된發起人이百二十名에達하얏슴으로豫定과如히去二十日에當地公立普通學校에서發起人總會를開催하고至今外國民의司會下에民大期成會의經過와趣旨說明이有하고其他事項을討議한後滿場一致로民立大學期成會々寧郡地方部를組織하기로可決하고三十分間休會하얏다가繼續하야地方部創立總會를開催하고準備會提出決議案과事業進行方法等을附議하야通過한後執行委員及常務執行委員會金保管委員及監査委員等을選擧하고同八時半에閉會하얏는데當日出席한發起人은八十餘名에達하는盛況을呈하얏스며當選된任員과決議案은如左하더라

決議案

一、朝鮮民立大學期成會趣旨와同創立總會決議案에贊同하야本地方部를組織함

二、本郡住民六千餘戶를網羅하야會員募集에盡力할일

三、會金은會員의資産程度와職業如何에依하야現金으로一個月以內에收納할일

四、本部의一切事務를執行키爲하야執行委員五十人常務委員若干人을置함

五、本部의財政을監督키爲하야監査委員十人을置함

六、本部의一切會金出納을處理키爲하야會金保管委員五人을置함

七、本部의會金을保管키爲하야左의金融機關에貯金口座를設置함

「會寧金融組合」

八、各面에서會金을收集하는대로地方部에送付할일

九、會金의出納은會金保管委員의連署를要하되執行委員會의決議에依하야此를實行할일

十、本部의總會는執行委員會에서必要로認하는時는執行委員長이此를召集할일

十一、本部事務는隨時決議進行에對한各般必要事項은每三個月마다各面執行委員에게發表又는通知할일

十二、本部의經費는會金百分의六으로하되不足되는時는執行委員會의決議에依하야處理할일

十三、本部의會計規則은中央部制定에依할일

任員

常務執行委員金瑞仲 全昌國 金鎭鎬 安興袁 黃昌律 陳一琓 鄭麟鎭 執行委員盧雲瑞 洪卿和 張云浩 金熙淳 林仲乾 李始煥 金澤南 崔範顯 李壽鉉 日熙 鄭僑鉉 金澤南 崔範顯 李壽鉉 衛金秉禧 申致徽 尹椿 金永燮 尹豐鉉 池昌瑀 李文極 吳濟垣 許燮李 東夏 申武京 金相五 南昆雲 金鍊基 李容李 李昫錫 會金保管委員 金植均 金爾玉 李東運 金秉治 陳鴻振 監査委員 兪漢泳 金聖均 黃河運 崔洪烈 金永國 鄭源崇 崔寶楠 崔哲淳 源昌 崔熙軾(會寧)

一孟山 郡에서는朝鮮民立大學期成會地方部를設立하기爲하야去十五日에發起人及各面長又는有力家各宗敎團體首領等百餘人이同地天道敎區에會集하야朝鮮民立大學孟山郡地方部設立에對하야討議한바滿場一致로此에贊同하야逐히地方部를組織하고役員을左와如히選擧하얏더라

地方部長文炳魯 執行委員高鳳植 方壬柱 方俊基 方基鎬 李雲務 金亨稷 吉藤方 晃淳 李始藩 方達經 方鎭

濟方昌濟 方錫任 愼文旭 吉鹿雲 方鎬元 朴普炳 安鎬洛 金洛俊 朴寅述 王材元 方鷲鎬 張熙禹 金彩珪 朴文述 吉鬪釗 秉洙 趙宅淳 禹公烈 趙遠恒 李麟永 趙炳玩 朴用玩 李炳夏 禹燮稙 金若健 李用模 朴昌元 方桂學 外十二人 會金保管委員安麟錫 朴炳鉉 審計部委員安麟壓 崔委員徐鳳球 金炳斗(德川)

鐵原 郡에서는民立大學地方部設立에對하야過般來發起人諸氏가此에努力中이든바諸般準備가着々進捗되야五月二十六日에郡民大會를開하고邑內及各面有志가多數會同하야臨時議長李鍾濬氏司會下에進行方針을如左決議하고任員을選한左와如히選擧하얏더라

決議要項

一、本地方部는財團法人朝鮮民立大學設立을目的함

一、本地方部集金額은四萬五千圓으로함

一、本地方部員은會金一圓以上을納入한者로함

一、鐵原邑內에地方部를置하고各面에支部를設置함

一、本地方部一切事務를進行키爲하야執行委員十五人을置하되支部에는各히此를支部에一任함

一、本地方部任員의任期는朝鮮民立大學第一期完了까지로하되補缺又는增減은此를委員會의決議에依함

一、本地方部의會金은本部執行委員會의決議에依하야相當한金融機關에保管하되保管委員의連署로외함

一、支部에서收集하는會金은每月終에必히地方部에送함

一、本地方部의進行詳細狀況은每六個月마다各會員에게報告함

一、本會費는百分之六을實收額에서除하야本地方部에서使用함

一、會金의出納은執行委員會의決議를逐하야行할것으로함

任員

執行委員長高運河 會金保管委員李鍾楠 金昌胤 監査委員崔昇李鳳夏 金宗鎬 常務委員李學洙 林東燁 執行委員金佑基 金東湖 殷柱彪 李鍾澄 金昌胤 池昌濟 李宰植 金臨濟 黃喜秀 李鍾楠 李起鉉(鐵原)

倘州 郡에서는民立大學倘州地方部를組織하고委員을左와如히選擧하얏더라

執行委員長柳寬植▲常務委員朴正鉉 沈潤濂▲執行委員朴東和 趙珏 旺所趙鳳衍 李壤雨 趙誠商 鄭在稷 尹旭大 金基穆 石鉦基 趙誠惇 劉宗漢 金東允 朴寅泰▲會金保管委員朴挺楨 鄭在奭 趙厚所▲監査委員朴正烈 朴熙瓚(倘州)

仁川在庫穀物
二十六日現在

仁川穀物協會調査에依한當地六銀行五月二十六日現在穀物在庫數量은如左한바前調보다玄米는八百十七石이減少하고其品別數字는如左하더라

玄米	四斗入	九八、三八三叺
同	五斗入	八、十五〇
白米	三斗入	五〇〇
同	四斗入	一、八三〇
同	五斗入	一四〇
大豆	四斗入	六、四一八
同	五斗入	一、八七六
小豆	五斗入	六〇
同	七斗入	五〇俵
小麥	四斗入	五、二〇九叺
同	五斗入	一、三三九
同	七斗入	二三五俵
綠豆	四斗入	一九〇叺
同	六斗入	一九俵
同	七斗入	二一
大麥	五斗入	二六三叺
正米	叺入	六、〇五一

少年書畫展覽
多數出品希望

全南靈岩郡靈岩面少年團의主催로六月二十四日即同團創立一週年紀念日에全朝鮮少年書畫展覽會를開催한다함은임의本報에報道한바어니와其準備內容은即陳列館은第一靑年會館第一幼稚園은作文第二靑年學院으로하야第一館에는習字及參考品을陳列할터이라는데此에對하야全朝鮮少年들은多數히出品하기를바란다하며去卄四日까지着品된것이各種數十點이라더라(靈岩)

衡平光州支社

慶尙南道晋州에總本部를두고各地方에支部를設置하야朝鮮全道에大々的으로白丁解放運動을하는衡平社에對하야는旣히本紙에屢報한바어니와去卄五日同社晋州支社에서는宣傳員三人이當地에來하야市內北門通萬歲座에서當地白丁三十餘人을會集하고衡平社의趣旨를說明後光州支社를組織하얏는대南致憲氏가支社長으로選定되얏더라(光州)

天道教人大會

今般天道敎中央宗理院을設立함에伴하야鎭南浦天道敎會에서는去十八日夜에一般敎人大會를開하고職員을如左選擧하얏더라

布德課宗理師高仲賓 庶務課宗理師鄭昌胤 經理課宗理師高崗成 講道師林英彦 李達鉉(鎭南浦)

內東石炭鑛好績

朝鮮總督府의經營인平南价川郡內東面石炭鑛은試掘한結果成績이頗히良好하다하며더욱이化石이多數含有하얏다더라(价川)

利原少年團組織

咸南利原邑에서는「어린이날」을期로하야有志의發起로利原少年團을組織코저準備中이더니去十二日에當地鄕校風詠樓에서發起總會를開하고黃裕一氏의趣旨說明이有한後規則通過와任員選擧를終了하고午後四時盛況裡에閉會하얏는데當選된任員은左와如하더라

團長黃裕一 副團長鄭大胤 總務金始鍊 申英瑞 會計金昌源 書記韓明助(利原)

地稅返還契約地主

全南順天郡住岩面에서는該面農民大會長趙奕浩氏以下任員諸氏가各地主와代理人을訪問하고地稅返還을請求한結果各地主와地主의代理人은陰曆四月晦內로農民大會를經由하야各小作人에게還給하겟다고返還契約證을作成하얏는데該地主及代理人의氏名은左와如하다더라

順天郡金華性、李處機、李芸性、朴晋芸、梁學善、朴皓然、崔吾日、鄭錦霞、李聖雲、趙基永、趙東潤、趙重訓、鄭寶錫、鄭基卓、朴南植▲求禮郡金永月代理朴魯洪▲和順吳子龍、鄭泰淑▲寶城崔孝日▲京城閔裕植代理趙秉勳(順天)

兄弟座의同情行演

朝鮮新派兄弟座玄聖完一行은今般當地에來하야光州座에서連夜興行한바每夜滿員의盛況을呈하는대同劇團은特히當地勞働夜學의經費困難함에對하야光州勞働共濟會의主催와東亞日報光州支局後援으로去二十五日同夜學을爲하야同情演藝를行하야盛況을呈하얏는데有志人士의不少한義捐을得하얏더라(光州)

白日場과角戱素劇

平南孟山郡에서는今般同郡普通學校增築落成과文廟修理竣功及警察署新築落成等이有함을期로하야去十四、五、六三日間에亘하야孟山郡郡勢發展祝賀의意味로素人劇과角戱及白日場等을開催하야大盛況을呈하얏더라(德川)

民大江華地方部

朝鮮民立大學期成會江華地方部發起會에서는五月二十八日同郡府內面官廳里에서江華地方部發起人總會를開하얏더라(江華)

通川公普運動盛況

江原道通川公立普通學校에서는通川靑年會의後援으로五月二十二日該運動場에서七百餘名男女生徒의運動이잇섯는대其中에女子三四學年生의優美輕快한「단쓰」와唱歌遊戱는七千餘의觀覽者로하야금喝采를博하얏고同郡公私立學校에서도六百名의生徒가來參하야頗히盛況을呈하얏더라(通川)

烏致院少年會創立

去二十七日午後三時부터當地勞働夜學校에서烏致院少年會創立總會를開催하고朴鴻緖君의司會下에會則通過又는任員選擧를行하얏는대當選任員은如左하더라

學習部委員洪顯奎、講論部委員林廷鎬、運動部委員朴鴻緖(烏致院)

●雙溪寺留學生派遣 河東郡雙溪寺에서目下寺費로外留學케하는學生이六名이라는대學校別은日本東京에二名이오京城에四名이라더라(順天)

●崇實學生來南 平壤崇實中學校學生一百五十名은去二十五日當地에來着하야各名所를見學하얏더라(鎭南浦)

●林業視察團來木 全南寶城郡林業視察團三十七人의一行은技手佐土原佐義及助手崔奕淳兩氏의引率下에五月二十一日同地를出發하야和順光州羅州方面을經由二十五日當地에來着하야翌二十六日은天候不調로滯在하고二十七日에務安郡廳山林係員金鍾寬氏案內로第三水源地勸業模範場市內各要所를遊覽하고二十八日夜에海南康津長興等地로向하얏더라(木浦)

●明倫學生遠足會 密陽郡明倫講習會生徒二百六十名은去二十六日에府北面位良里良也池를見學하고同面退老里正進私立學校의庭球及蹴球의競技가有하얏더라(密陽)

●江華講習所生旅行 江華邑內江華講習所에서는去十五日春期修學旅行次八十餘名의學生은所監鄭泰奎氏의引率下에三郞城과摩尼山의祭天壇을參觀後同郡正陵講習所長李珪儀氏家에서一夜를宿泊하고興天學校와西海沿岸을見學한後二十六日午後八時에無事歸所하얏더라(江華)

●燕岐公普同窓會組織 燕岐公立普通學校는創立十有餘年에卒業生이百五十餘名에達하는바今般同窓會를組織하얏는데同會의任員은如左하더라

會長李勳甲 副會長林廷鎬 幹事洪鍾國 李勳杜(烏致院)

●金秉治氏張宴 會寧富豪李洋行主金秉治氏는今般民大地方部가當地에組織됨에對하야非常한誠意로써此를歡迎하고特히二十一日은各面에서出席한民大發起人一同을招請하야盛宴을張하얏더라(會寧)

各地青年團體

寧邊青年運動會

寧邊靑年會에서는五月二十六日에月例會를開催하고來陰五月五日六日兩日間에開催할春季大運動會에對하야協議한後運動會役員을選擧하얏더라(寧邊)

會寧青年會館上樑

會寧靑年會에서는同會館을建築키爲하야百方으로活動中이라함은旣報와如하거니와客月以來工事에着手하야去陰四月八日에上樑式을擧行하얏는데當日地方一般有志及會員이多數來集하야樂隊의奏樂으로副會長全昌國氏의開會辭와來賓及會員의祝辭가有한後祝賀宴에移하야十分의歡을盡하고紀念撮影等으로外盛況裡에同四時閉會하얏더라(會寧)

利原青年聯合巡講

利原靑年聯合會巡迴講演團一行은去五月二十一日夜長遠里靑年會臨時事務所에서講演會를開하고姜泰燮氏司會下에演士李昌河君은「우리들의不平」이란題로全元淑君은「貧弱한朝鮮사람」이란題로各히長時間에亘하야熱辯을吐한바聽衆滿場의盛況을呈하얏더라(利原)

●靑洞里에서도講演 利原靑年聯合會巡迴講演團一行은去十九日淸洞里에서講演會를開하고趙琪衡氏司會下에演士全元淑君은「無職世界의新生命」이란題로李昌河君은「社會와我」라는題로各히熱辯을吐하얏더라(利原)

社告

一、分局의名稱 靈山分局

二、分局의位置 昌寧郡靈山邑

三、分局의管轄區域 昌寧郡一圓

四、分局長의氏名 分局長 張振秀

一、分局의名稱 山淸分局

二、分局의位置 山淸郡邑內

三、分局의管轄區域 山淸郡一圓

四、分局長의氏名 分局長 金弘珠

右와如히分局을新設하얏사오니該管內에居住하시는本報愛讀僉位는新聞請求及廣告申托等一切을直接問議하시압

東亞日報社 白

今般本支局에서業務를一層擴張키爲하야吳鎭均君을會計員으로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如此照亮하시압

東亞日報 高敞支局 白

今般本支局記者朴老英君은事故에依하야辭免하얏삽기金大厚君을記者로採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如此照亮하심을務望하나이다

東亞日報 淸津支局 白

本支局記者金俊化君은事情에依하야辭免하얏삽기金俊午君을記者로任用하얏사오니愛讀僉位는照亮하시압

東亞日報 靈岩分局 白

今般本分局管內唐津面邑內里販賣所에서業務를擴張키爲하야成善鎬君을記者로採用하얏사오니一般愛讀僉位는如此照亮하시압

東亞日報 唐津分局 白

結婚翌日에 離婚된女子
秘密의原因! 新郎의口로洩出……

조선(橫本)에라도쓰리만큼한美人인故로처음보자곳緣談이成立되야盛大한新婦의婚典을擧行하얏더니其翌朝에當番婚郞이아모리하야도妻로하기는실타고하기에門에離婚하는바에는速히하는것이좃켓다고하야곳親家로돌녀보냇는데아마오줌싸개(夜小便)인가부다其他等別々風說이만히잇섯스나新郎이親友에게秘密히洩出한實話에依한즉이新婦는가련하게도當然히잇슬곳에털(毛)이업섯다한다大抵毛가업던지或은여러가지原因으로毛가빠저서된々이되던지하는것이不治之病이라면할수업지만은最近皮膚科의進步에依하야醫學博士田中友治氏가苦心한結果今回發表한方法에依하면날에부터털업는사람또는귀찬은사람케람에應用하야醫界貴賞하는靈法인故로實驗者의好評이湧出함니다無毛、薄毛、脫毛、腋毛、薄眉毛其他毛의不足又는不合彩에煩惱하는人은「田中博士靈法逐」이라써서東京芝區田村町東京藥院에보내시면公益을爲하야全部無料로封書個人名義로詳報함

● 三萬五千圓

新債劵八十九回 「五千圓」二十一本 一通十圓廿錢(送料一口十錢) 年三回抽籤 初回抽籤七月一日

同番號組賣

一萬圓當 二通組 廿一圓半
一萬五千圓當 三通組 三十三圓
二萬圓當 四通組 四十五圓
二萬五千圓當 五通組 六十圓
三萬圓當 六通組 八十圓
三萬五千圓當 七通組 百十圓

多數割引(例四三通組百五十五圓과如함)

東京市麴町區內山下町(日本勸業銀行構內)

勸業債劵月報進呈

日本勸業證券株式會社

振替東京一八番

新刊 書籍目錄 無代進呈 請求하면 大阪市東區丹櫓町四 文化堂

衛生的文化生活의必需品

最新內服藥 지쿠노-루 蓄膿症……肥厚性鼻炎

鼻

等難治의病이短時日內로服用하고腦神經衰弱에卓效가有하다

價十日分三圓五十錢送料十八錢 新聞名을記入하야請求하시는이에는耳鼻衛生書無代進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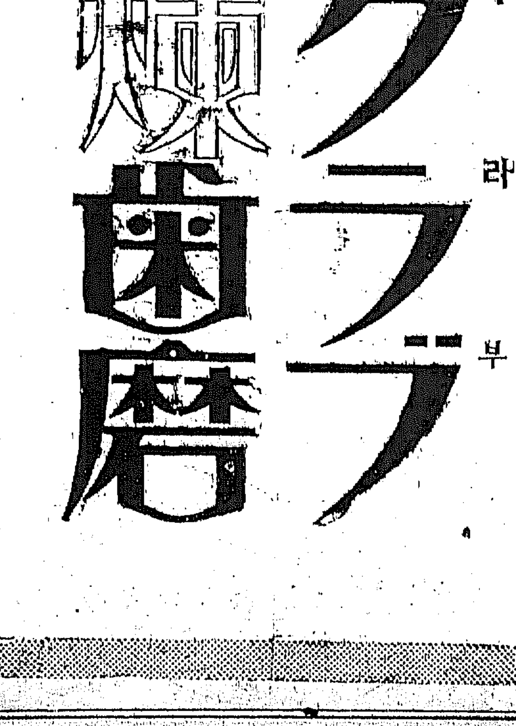
東京神田表神保町一〇(一構通) 製造發賣元 三鱗製藥社 電話神田四七六番 振替東京四一一九六番

代理店 京城 玉屋合名會社 大木合名會社 中田文店 福井商會 平壤 櫻井合名會社 其他全國藥店에잇소

募集 男女自宅易來 机上簡出 執筆無代 則呈 寫字生 遠近不問收益多 詳細 大阪市南區天王寺 細工谷町五四九〇 公盛社

新裝 愈出而……益好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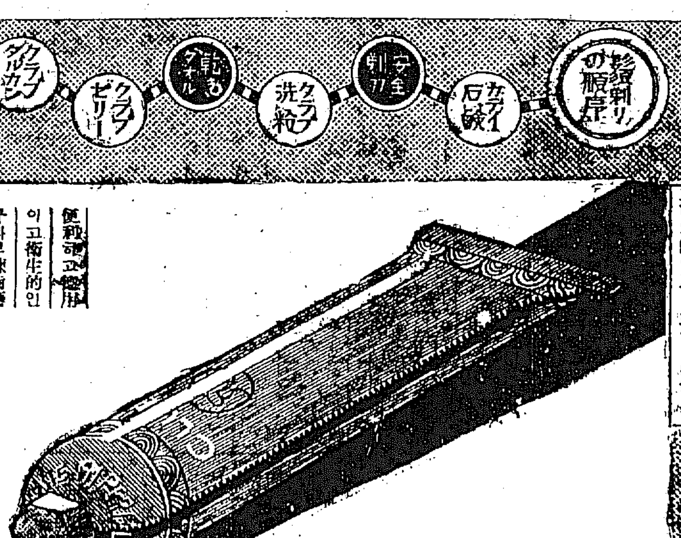
品質本位 蜂印香竄葡萄酒



마시면마실사록피되고살이됨

東京本町 近藤利兵衛商店

姸麗 月日 清秀 クラブカルダン クラブビリー クラブ乾粉 クラブ洗粉 安全剃刀 クラブ石鹸 ト歯磨リ



便利하고經濟的이고衛生的인 구라부煉齒磨의押出주부入

現代의文化生活에適合하고純良且經濟的인齒磨로서信用이最厚한

クラブ煉歯磨 (구라부)

菊版八十頁의 朝鮮諺文으로쓴

女子의顧問

(一名 女子一生의衛生秘訣)

女子의兒孩때는方法、成人하야家庭을敎養하는生活法等을行하야健康을保全하고女子가되는法、아는方法等을朝鮮文으로說明한것이외다。著者는醫學博士田中三郞先生이니其責任이重하니女子一生의要訣을記錄한이新聞紙에五厘郵票를添하야보내시면無代進呈하야드립니다。

「命의母」의 著述一寫

無代進呈

東京市京橋區新榮町四ノ一 命의母本舖

汽車